

문화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도구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응답하라 1978>을 볼 수 있습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 지면 중에서 문화면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문화 사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서울주보 문화면은 더 다양한 것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중반 명동 주교관 숙소에 살 때, 주일 오후에 명동성당 마당으로 산책을 나가면 매년 놀라운 장면을 보곤 했습니다. 명동대성당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미사 네 대가 연속으로 봉헌됩니다. 그런데 오후 미사가 끝날 때마다 청년들이 마치 파도의 밀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청년들이 피약별 아래 줄을 서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서울주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대견하고, 예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가끔 동창 신부들이 요즘 본당에는 단체에 들어갈 청년도 없어서 청년 사목이 어렵다며 걱정을 하곤 하던데, 저는 이 청년들이 왜 명동에 이렇게 집결(?)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후 몇몇 청년 신자들과 담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저희는 그냥 청년이 아니라 조금 늙은(?) 청년들이에요.”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대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늘 푸른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본당에서 들어갈 단체가 마땅히 없어요. 낡은 세대라고 하나요? 어쨌든 어디에 묶이는 것은 싫고, 미사 참례도 자유롭게 주일 오후에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식사도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몇몇 강의를 조심스럽게 주일 미사 전후로 진행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미사만 봉헌하고 가는 것보다 한두 시간 성당

에 더 머무르면 도움이 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좌 때 주임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신자들은 무조건 성당에 와 있어야 해.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 미사 참례는 못하더라도 마당에서 아이와 같이 놀고 있어도 괜찮아.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사귀는데 정신 팔려 기도는 못해도 돼. 성당은 성령의 궁전, 아버지의 집이야.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 후 홍보국에서도 문화팀을 만들고 주일뿐 아니라 주간에도 문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마침 사회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 때라 종교미술사, 인문학 강의들은 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친김에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공예 등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각자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다 보니 지원자들은 항상 넘쳤습니다. 지금은 문화학교도 생기고, 예술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기 전, 그림 그리기 낮반에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이십여 명이 모여 손너뻔 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스케치 북에 선긋기를 하고, 원통과 삼각뿔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님과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교수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젠 퇴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주보를 보고 멀리서 배우러 옵니다. 명동성당은 몇십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수업 오는 날이면 친정집 오듯 아침부터 설렙니다. 마치 어릴 때 순수했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그리는 것이 그 같은 체험을 선사할 줄 몰랐습니다.